

대 자연: 창조냐 진화냐?

리살레이 누르 (Risale-i Nur) 서적에서
스물세 번째 성광



Bediuzzaman Said Nursi 지음

지은이 Bediuzzaman Said Nursi

번역자 신양섭

원서명 Tabiat Risalesi

편집장 Muhammed OZKAYA, Ahmet AYDOGAN

이메일 readnurkorea@gmail.com

역자 : 신양섭

역자 신양섭은

* 198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졸업.

* 1985-1987년 요르단 정부 장학생으로 이슬람대학에서 아랍어 연수.

* 1987-1995년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페르시아어문학과 석·박사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에서 강의 중.

* 주요 저서 :

『바보 현자의 웃음 철학』(2005),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2012)와 다수

* 주요 논문 :

「페르시아 문학 속의 예수 관련 표현 연구」(2012)
외 다수가 있다.

「페르시아 문학 속의 반유대주의 표현 연구」(2017)

저자 목자

Bediuzzaman Said Nursi (b. 1876-d. 1960)는 그의 추종자들과 반대자들에게 20세기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ediuzzaman은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지능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고, 14 세의 나이에 Madrasa (종교 학교) 교육의 정상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 학자들과 논쟁할때에 놀랄만한 기억력과 정복당한 적이없는 기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정확한 기억력과 훌륭한 분석 능력의 확인으로 "Bediuzzaman"또는 "비할데 없는 시간"또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다른 학생들이 9년만에 성취 할 수 있는 것들을 Nursi는 3 개월 만에 성취했습니다.

Bediuzzaman Said Nursi의 작품 (The Risale-i Nur Collection)은 130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하게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루는 것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읽는 이가 믿고 있던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물론적 철학에 깊숙이 스며 들어있는 사고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야기하는 모든 질문, 의심 및 혼란에 구체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답변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그의 Risale-i Nur는 터키에서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국가에 의한 억압에 노출된 기간 동안 회교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지역의 이슬람교 부활에 한 몫을 했습니다.

Bediuzzaman Said Nursi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알게 됨에 따라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Risale-i Nur 서적은 미국,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필리핀, 튀니지, 러시아, 호주 등의 50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Bediuzzaman Said Nursi의 탁월한 작품은 오랜 세월을 걸쳐 과학, 철학, 종교 등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Risale-i Nur 움직임은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1960년 3월 23일, Bediuzzaman Said Nursi가 사망했을 당시에 법원에서 평가한 그의 개인 재산 전체

는 평소 그가 말하던대로 바꾸니 한통뿐 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나의 전 재산은 바꾸니 한 통뿐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에대해서

이 글은 열일곱 번째 섬광의 열여섯 번째 주
해였지만 그 중요 성 때문에 여기서는 스물세 번
째 섬광으로 구성했다. 이 글은 자연으로 인해 생
긴 불신감의 생각다시금 부활하지 않도록 죽이며
불신감의 근간을 뿌리째 허물어 버린다.

주의

이 글에서 자연 숭배자들이 가는 길의 실체
가 얼마나 비이성 적이고 얼마나 추악하며 어느
정도로 미신적인 것인지를 최소 한도 90가지의 불
가능한 것을 포함하는 9가지의“불가능”에대 해서
서술했다. 다른 글들에서 그 불가능한 것들을 일
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히 간단하게 몇
가지 단계들만 밟도록 하겠다. 바로 이 이유 때문
에 어떻게 이처럼 유명하고 똑똑한 철학자들이 그
토록 분명하고 확실한 미신을 받아들여 그 길을
가게 되었는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의 내면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가는 길의 실체와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씌여질 각각의 “불가능” 끝에 설명할 추악하고 혐오스러우며 비이성적인¹ 그들이 갖는 사고의 중점이 그들이 가는 길의 필연적이며 회피할 수 없는 것임을 극히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통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명할 준비가 되어있다.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자(선지 자)들께서 말했느니 “하늘과 땅을 창조

¹ 이 글을 적는 이유: 상당히 공격적이며 추악하게 신앙의 진리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성의 상함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미신적이다 라고 하며 무신론을 자연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며 구란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 공격으로 인해 펜(마음)을 심하게 분노하게 하여, 그 무신론자들과 올바른 길을 무시하며 타락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심하고 센 뱀을 때리게 하였다. 원래의 리살레이 누르의 문체는 유쾌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찌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꾸란14:10)

이 성스러운 꾸란의 구절은 반문적 수사법을 사용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스러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유일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비밀을 밝히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점

나는 1922년에 앙카라에 갔다. 터키 군대가 그리스에 승리를 거두고 환희에 취해있던 가운데 극히 공포스러운 한 무신론자의 생각이 그 속에 파고들어 분위기를 깨트리고 독을 퍼뜨리기 위해 가증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오, 하나님. 이 용이 이슬람 교리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바로` 이 성스러운 꾸란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와 유일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것에 도움을 받아, 그 무신론적 풍조를 사그라뜨려 깨트릴 정도로 지혜로운 꾸란으로부터 얻은 강한 증거를 아랍어로 쓰기 시작했다.

나는 앙카라의 예니 군(Yeni Gun)이라는 출판

사에서 이 글을 출판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랍어를 아는 사람이 적었고 그 것을 중요하게 본 사람도 드물었을 뿐 아니라 너무도 간단하게 요약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강한 증거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그 무신론적 풍조는 다시 나타나 힘을 얻었다. 할수 없이 나는 그 증거를 터키어로 어느 정도 설명하겠다. 그 증거의 일부는 몇몇 글에서 완전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될 것이다. 다른 글에서 분류했던 수많은 증거들은 이 글의 증거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이 글의 증거의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서론

오, 사람이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무신론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표현들이 있다. 신앙자들은 이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개만 이야기하겠다.

첫째: “원인들이 이것을 만들어낸다.”

둘째: “ 그 스스로 형태를 갖추고 존재하고 완

성된다.”

셋째: “자연적인 것이다. 자연적으로 있어야 하고 자연이 만들어낸다.”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있으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존재는 지혜롭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생긴다. 또한 예전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긴다. 따라서 오, 불신자여! 이 존재는 예를들면 이 동물은 세상의 원인들이 만든다고 하거나 즉 원인들이 모임으로서 그 존재가 생긴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은 스스로 형태를 갖춘다고 하거나 또는 자연 때문에, 자연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 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 4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처음 3가지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것이거나, 터무니 없는 것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된다면 틀림없이 그리고 분명히 네 번째 방법인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한 방법이 의심이나 의문의 여지 없이 사실임이 증명될 것이다.

첫 번째 방법: “세상의 여러 원인들이 모여서 물체들이 형성되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3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어떤 약국에 다양한 물질들로 가득 찬 수백 개의 약병이 있다고 치자. 그 약 성분들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연고가 필요했으며 또한 그 성분들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약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국에 가서 그 살아있는 연고와 살아있는 약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연고들을 하나하나 검사해보니 그 약병들 하나하나에서 어떤 특별한 분량으로, 어떤 것은 1-2 그램으로, 어떤 것은 3-4 그램으로, 또 어떤 것은 6-7 그램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량으로 성분이 채워져 있는 것을 알았다. 만일 그 가운데 한 병에서 1그램을 빼거나 더한다면 그 연고는 효과가 없으며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살아있는 약을 조사해 보니 그 각각의 약병에는 어떤 특별한 분량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는데 아주 약간만 모자라거나 많아도 그 처방의 효능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약병들이 50개가 넘지만 마치 각각에서 특별한 측정으로 취합한 것처럼 다양한 용량으로 성분들이 모여졌다. 설마 그 병들이 이상한 우연의 일치로 혹은 바람이 불어 엮어짐으로써 각각의 병에서 얻어진 정확한 양이 쏟아져 함께 섞여 그 연고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보다 더 미신적이며 불가능하며 터무니없는 일이 있겠는가? 당나귀가 더욱더 바보스러워진 후 인간이 되어 말한다 해도 “나는 이런 생각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어.”하고 달아날 것이다.

이처럼, 생물체 그 각각은 틀림없이 하나의 살아있는 연고이며, 식물 그 각각은 하나의 살아있는 약과 마찬가지로 이니 그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그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상당히 민감한 분량을 취해 만들어진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원인들이나 그 요소들의 덕으로 돌린다면 또한 “원인들이 만들어냈다”고 말한 다면 그 약국에 있는 연고들이 병들이 엮어져서 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100배 비이성적이며 불가능하며 허황된 것이다.

요컨대, 거대한 약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시작도 없이 영원하시며 현명하신 분의 성스러운

실행과 결정의 저울로 달아낸 생명의 물질들은 끝 없는 지혜와 한없는 지식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지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장님이나 귀머거리의 일이지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모든 끝 없는 요소들과 자연들 그리고 원인들이 만든 일이다”라고 말하는 불행한 사람이나 “그 놀라운 해독제는 그 병들 스스로가 얹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미친 망상가는 취한 바보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다. 그와 같은 부인(否認)은 바보이자 술 주 정뱅이이자 미치광이들이나 하는 허튼짓이다.

두번째불가능: 만일 모든 것을유일하시며 영광스럽고 전능 하신 분의 덕으로 돌리지 않고 원인들의 덕으로 돌린다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요소들이나 원인들은 각각의 생물체의 몸 안에서 관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파리처럼 하나의 작은 피 조물의 몸 안에서 완전한 질서와 세밀한 균형과 완벽한 조화가, 다양하고도 서로서로가 상반되고 상충되는 원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파리의 날개만큼이나 미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것은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파리 한 마리의 아주 작은 몸은 세상의 대부분의 요소나 원인들과 관계되어 있으며 아마도 그 삼라만상의 축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시작이 없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 물질적 원인들이 그 파리의 바로 곁에서 스스로 현존(顯存)하여 그 작은 몸체 안으로 들어가야 함에 틀림이 없다. 심지어 그것들은 그 몸체의 조그마한 샘플인 눈[目]의 하나의 세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이 물질적 성분이라면 그것은 그 결과의 곁 그리고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요소들과 성분들이 파리의 침 끝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그토록 작은 세포 안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며 마치 숙련 공처럼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 궤변론자들 가운데 가장 우매한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주장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불가능: “어떤 단일체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어떤 또 다른 단일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 특히 그와 같은 존재가 극도로 완벽한 질서와 섬세한 균형 속에서 포

괄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혼동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손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극히 전능하고 지혜로운 단 하나의 손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셀 수 없이 많으며 생명이 없으며 무지하고 공격적이며 무감각하고 무질서하며 듣도 보지도 못하는 자연의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힌 채, 수많은 가능성의 길 속에서 서로 부딪치고 섞이어 그 원인들의 무질서와 부조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질서와 균형이 잡혀있는 어떠한 존재를 그 원인들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 100가지를 한꺼번에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비이성적이다.

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물질적인 원인들은 직접 접촉함과 만지는 것으로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원인들이 접촉하는 곳은 생물체의 외부이다. 물질적 원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며 접촉하지 못하는 그 생물체의 내부는 그 외관보다 10배는 질서가 잡혀 있고 더욱 섬세하며 기술적으로도 더욱 완벽하다.

물질적 원인의 손길이나 기구들로 그 어떤 방

법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아마도 그 외관조차도 완전히 접촉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은 작은 동물들이나 가장 큰 피조물들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인 면에서 놀라운 것이다. 또한 창조의 면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생명이 없고 무지하고 조잡하며 멀리 떨어져 있고 크고 서로서로가 상반되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원인들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100배 더 눈이 멀고 1000배 더 귀가 먼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두 번째 주제: “그것이 자기 스스로 형성된다”는 것인데 너무 도 많은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허황되며 불가능하다. 그 본보기로 불가능들 가운데 3가지만 설명해 보겠다.

첫째, 오, 고집스럽게 부정하는 자여! 당신의 자만심이 당신을 너무도 바보로 만들어 놓아 당신은 100가지의 불가능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고 있다. 당신 자신도 하나의 존재이며 어떤 단순한 물질이거나 비생물체이거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하나의 잘 갖춰진 기계와 같으며 항상 변화하는

멋진 궁전과 같은 존재이다. 당신의 몸속에서는 언제나 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당신의 몸은 우주와 특히 생계유지나 종의 보존과 관련되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당신의 몸속에서 활동하는 분자들은 그러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마치 온 우주를 참작하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주 속에서 당신과의 관계들을 고려해 그에 따라 그것들은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위치에 따라 당신의 외면적 혹은 내면적 감각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일 그 몸속에 있는 분자들이 시작도 없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들이요 혹은 하나의 군대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의 펜촉들이어서 그 분자 하나하나가 그 펜 측과 같은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찍어 놓은 점들이어서 그 분자 하나하나가 그 점과 같은 것임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눈에서 활동하는 그 각각의 분자는 당신의 신체 각 부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필요로 할 것이며, 당신의 과거와 미래, 조상과 후손, 당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근본들, 당신의 양식의 근원들을 모두 알고 인식할 수 있는 100가지 만큼의 지식이 그 분자 하나하나에 게주어져야 할 것이다. 당신처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분자만큼도 지혜롭지 못한 한 분자에게 1,000명의 플라톤에 해당되는 지식이나 감각을 주는 것은 아마도 1,000배 만큼이나 미친 미신적 행위가 될 것이다.

두번째불가능 :당신의 몸은 1,000개의 돔을 가진 하나의 멋진 궁전과 같은 것인데 그 각각의 돔에 있는 돌들은 기둥 없이도 서로 기대어 공중에 떠 있다. 틀림없이 당신의 몸은 그 궁전보다 1,000배나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몸이라는 궁전은 항상 완벽한 질서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지극히 놀라운 정신, 심장, 그리고 그 밖의 섬세한 감각들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각 신체기관은 한 개의 돔이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 분자들은 그 돔에 있는 돌들처럼 완벽한 질서와 균형으로 서로서로가 의지하며 멋진 하나의 건물을, 뛰어난 하나의 예술을, 눈이나 혀처럼 각자의 놀랄만한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 분자들이 이 세상의 건축가

의 명령에 따르는 일꾼이 아니라고 한.

다면 그 각각의 분자는 몸 전체에 있는 분자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해야 될 뿐 아니라 서로서로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며, 서로가 동등해야 된다. 동시에 지배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대립하며, 오직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만의 수많은 속성의 원천과 근원들이 극히 한정적으로 또한 극히 절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의 비법을 통해 오직 유일하신 분만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완벽하게 질서가 잡혀있는 그 유일한 창조물을 그 수많은 분자들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그 분자만큼의 지각 밖에 갖지 못한 자라도 그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지어는 100배 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불가능 : 만일 당신의 몸이 유일하시고 시작도 없이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의 펜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 원인들에 의해 인쇄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체세포만 해도 그 각각의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방의 수 만큼,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수천 개의 조합의 수 만큼 자연의 모형 틀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손에 있는 책이 필사본이라면 오직 하나의 펜이 그 작가의 지식에 의거해 그 모든 것을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작가의 펜에 의해 씌어진 필사본이 아니라 저절로 씌어진 것이라거나 자연으로 돌린다면 인쇄된 책처럼 그 각각의 철자를 위해 각각 다른 철 펜이 있어야 인쇄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쇄에서는 그 철자 수 만큼의 철 펜이 필요하며 그다음에야 단어들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펜이 아니라, 그 철자 수 만큼의 펜을 필요로 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그 철자들 안에 간혹 있듯이 작은 펜으로 큰 철자 하나에 한 페이지가 작은 철자로 적혀있다면 단 하나의 철자를 위해서 수천 개의 펜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 하나하나의 속으로 들어가 질서 있게 당신의 몸과 같은 하나의 형태를 취한다면 몸의 각각의 부분에는 각각의 요소를 위해 그 조합의 수만큼 모형 틀이 필요할 것이다.

자, 100가지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이 질서 있고 예술적인 철 펜들과 완벽한 모형 틀과 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로지 하나의 펜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 펜들과 그 모형 틀과 그 철 펜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또다시 그 숫자만큼의 펜들과 모형 틀과 철펜들과 철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 또한 질서가 잡히고 예술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끊임없이 반복 확장될 것이다. 이제 당신도 알 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몸 안의 분자들 수 만큼이나 불가능하고 미신적이라는 사실을.

오, 고집스러운 불신자여! 당신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타락한 길을 포기하라.

세 번째 표현 : 자연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는 수많은 불가능함들이 있으며 그중에 예로 3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첫째, 만일 존재들 속에 특히 생물체들 속의 통찰력과 지혜로 움이 보이는 예술과 창작을, 시작도 없이 영원한 태양과 같은 분의 결정과 권능의 펜 덕분에 돌리지 않고 눈멀고 귀먹고 생각도 없는 자연과 힘의 덕분에 돌린다면 자연은 그것들

을 창조하기 위해 그 모든 것에 수많은 정신적 기계와 인쇄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혹은 그 모든 것에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할 권능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햇빛은 지상에 있는 작은 유리조각이나 물방울에 비추어지고 반사된다.

만일 그 찬란한 빛과 반사된 빛이 하늘의 유일한 태양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성냥머리 보다도 작은 유리조각 속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리고 태양의 특성을 가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태양과 닮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유리조각의 수 만큼이나 많은 자연의 태양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존재들과 생물체들의 시작도 없이 영원한 태양과 같은 분의 이름들이 바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각각의 존재들은, 특히각자의 생물체는 한없는 권능과 의지 그리고 끝없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하나의 자연이나 어떤 힘 혹은 지극히 단순한 어떤 신을 인정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와 같은 생각은 우주에 있는 불가능 가운데 가장 허황된 것이요, 가장 미신적인 것이다.삼라만

상의 창조주의 예술을 보잘것없고 중요치도 않으며 지각도 없는 자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짐승보다도 100배 짐승 같으며 더 지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두 번째 불가능 : 만일 극도로 질서와 균형이 잡혀있고, 예술적이며 지혜로운 이 존재들이 끝없는 권능과 지혜를 갖춘 어떤 분의 덕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의 덕으로 돌린다면, 한 줌의 흙마다 유럽의 모든 인쇄소와 공장의 수만큼 많은 기계들과 인쇄 소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한 줌의 흙은 근원과 일터가 되는 수많은 꽃들과 과일들을 키우는 것과 형성하는 것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꽃들을 위해 화단의 의무를 수행하는 화분의 흙에 꽃씨를 차례대로 뿌리면 그 모든 꽃들이 서로가 완전히 다른 형태와 모양으로 자라서 피어나는 능력이 실제로 보여진다.

만일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분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 화분의 흙 속에 각각의 꽃을 위한 비물질적인, 서로가 다른, 자연적인 기계들이 없이는 위와 같은 상황은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꽃씨들은 정액이나 달걀과 마찬가지로 그 성분이 같

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산소와 수소와 탄소와 질소가 무질서하게, 일정한 형태도 없이 마치 반죽처럼 뒤섞여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 물, 온도, 빛 또한 각각 단순하고 지각이 없으며 마치 홍수처럼 모든 것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꽃들이 형태가 각기 다르게 그리고 극히 질서가 잡히고 예술적인 형태로 그 흙에서 피어나기 위해서는 명백히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 화분의 흙 속에 비물질적인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의 인쇄소와 공장들이 유럽만큼 많이 있어서 그토록 생생한 옷감들과 수천개의 서로 다른 무늬가 새겨진 직물들을 짜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주의자들의 불신적 (不信的) 인 생각이 얼마나 이성의 영역에서 빛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또한 자연을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탈을 쓴 멍청한 주정뱅이들이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성과 과학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또한 그들이 불가능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미신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을 바라

보면서 크게 비웃고 침을 뱉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당신이 말한다면: 존재하는 것을 자연의 덕으로 돌린다면 이처럼 이상한 불가능한 일들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들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유일하시며 만물로부터 간청을 받으시는 분의 덕으로 돌린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또한 어떻게 그 어려운 불가능이 쉬운 필연성으로 바뀌게 되는가?

답변: 첫 번째 불가능에 대한 설명에서, 완전히 쉽게 문제없이 가장 작은 무생물인 입자부터 가장 광대한 바다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반사되는 태양의 반사의 징후가 작디작은 태양들을 통해 빛과 영향을 아주 쉽게 나타낸다. 그러나 만일 태양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각각의 작은 입자에 태양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직접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존재를 바로 유일하시며 만물로부터 간청을 받으시는 분의 덕으로 돌린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쉬움과 관계와 징

후를 통해서 각자의 존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관계가 끊어지고 본연의 임무가 없어져 그 각자의 존재 스스로에게 혹은 자연에게 맡겨진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10만 배의 어려움과 장애가 생기게 되고, 눈먼 자연이 우주의 작은 목록 가운데 하나인 파리와 같은 생물체와 같이 아주 놀라운 신체의 기계를 창조하고 우주를 관장하고 지배할 힘과 지혜의 소유자라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불가능이 아니라 수천 배로 어려운 불가능이 될 것이다.

요컨대,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과 함께할 자나 그분에 비할 자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고 양육하시는 일에 다른사람 들이 끼어드는 것도 그분에게 함께할 자를 놓는 것만큼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번째 불가능의 경우 수많은 글에서 증명되었듯이, 만일 만물을 유일하신 분의 것으로 돌린다면 만물이 일관성 있게 쉽고 간단해진다. 하

지만 원인과 자연의 덕으로 돌린다면 어느 것 한 개체도 모든 것처럼 어려워진다는 것이 수많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요약해서 살펴보겠다. 어떤 사람이 왕과 군인으로서 혹은 신하로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 신하 혹은 군인은 그 관계의 힘으로 개인의 능력보다 10만 배 이상 발휘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때는 왕의 이름으로 다른 왕을 포로로 잡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힘을 그 자신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가져올 의무도 없다. 왕과의 관계 때문에 왕의 창고에서 혹은 그 뒤에 있는 왕의 지원대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서 그 장비와 힘을 가져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맡은 임무는 왕의 일처럼, 그리고 그가 보여준 영향력은 군대의 영향력만큼 대단할 수 있다.

개미는 신하로서의 임무로 파라오의 궁전을 파괴했으며 파리도 그 관계로 니므롯 왕을 살해했다. 또한 그 관계를 가지고 보리 한톨만큼 작은 소나무 씨앗도 거대한 소나무의 각부분들을 키워내는

것이다.²

만일 관계가 끊어져 그 임무로부터 물러난다면 앞으로 그가 하려는 일의 장비나 힘을 그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작은 손목의 힘만큼 그리고 그의 허리에 있는 탄약만큼의 일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손목에서 하나의 군대 힘만큼 그리고 허리에서는 한 왕의 무기공장만큼의 임무를

² 그렇다. 만일 관계가 있다면 종자(씨앗)는 신성한 결정으로부터 집행 명령을 받아 그 놀라운 임무를 수행한다. 만약 그러한 상관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종자의 창조는 소나무가 종자를 잉태하는 역량보다도 큰, 더 많은 장비, 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산에 있는 권능의 작품인 거대한 소나무의 부위와 장비 전체가 그 씨앗에 있는 결정의 작품인 잠재적인 나무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소나무의 공장은 바로 그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의 속에 있는 결정의 나무는 권능으로 나타나며 실질적인 소나무가 되는 것이다. 씨앗에 내재(內在)된, 결정자를 지닌 잠재적 나무는 신성한 힘의 작용을 통해 외부 세계에 현시되어 실재적(實在的)인 소나무가 되는 것이다.

짊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미신적인 엉터리 이야기들을 꾸며내는 광대들조차도 이러한 허황된 생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결론: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필연 적일 정도로 용이함이 있게 되지만 그것들의 창조를 자연의 덕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고 이성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불가능: 몇몇 글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불가능을 밝혀낼 두 가지 예가 있다.

첫 번째 예: 한적한 사막 위에 모든 문명의 수단들을 동원해 지어지고 꾸며진 한궁전에 아주 야만적인 한 사람이 들어가 그 안을 보게 되었다. 잘 정돈되고 예술적으로 꾸며진 수천가지의 사물들을 보았다. 그의 야만성과 무지함 때문에 “밖에 있는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안에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그 궁전과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을 거야”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의 야만적인 이성조차도 그것이 스스로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받아

들 이지 못했다.

그런 후 그 궁전의 구조 도면과 내용물 목록과 운영 규칙을 글로 기록한 한 권의 공책을 보게 되었다. 실로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어떤 도구도 없는 그 공책 역시 그 궁전 안에 있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궁전을 짓고 장식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해 그 공책이 이론적 규칙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궁전의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바로 이 공책이야 말로 이 궁전을 짓고 배열하고 장식한 후 이 물건들을 만들어 걸고 배치했구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야만성이 우매한, 술 취한 허풍쟁이로 드러났다.

바로 이와 같은 비유처럼, 상기의 예에 나오는 궁전보다 더욱 질서 있고, 더욱 완벽하고, 온통 기적 같은 지혜로 가득 찬 이 현세의 궁전으로 성스러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연주의 사상(思想)을 가진 야만적인 사람이 들어간다.

그는 만물이, 가능성의 범주를 초월하시고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예술적인 작품임을 생각

하지 않고 그런 가능성을 외면하며 신성한 결정이 쓰며 지우는 가능성의 범주 안에 있는 현판으로 판단되는, 신성한 권능의 운용 법의 바뀔 수 있는 공책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잘못과 실수로 “자연”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실행 법전과 양육자이신 분의 예술 목록을 보았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들은 원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공책 못지 않게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나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이 수 없다. 눈도 없고 지각도 없고 힘도 없는 이 공책이 절대적인 (Rububiyet³)의 일이며 끝없는 권능을 필요로 하는 창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 시작도 없이 영원하신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 공책이 그 일을 했으며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할 수 있겠다.

오, 바보들 중에 상 바보여, 우매함에 취해있는 바보여! 자연의 높에서 머리를 쳐들고 뒤를 보라.

3 하나님의 끝이 없는 양육하심과 만물의 주인, 만물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

작은 조각에서 행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언어로 증언하며 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창조주를 보라. 또한 그 궁전을 만드시고 그 공책에 궁전을 설계하신 시작도 없이 영원한 장식 가이신 분의 징후를 보라. 그분의 명령을 보라. 꾸란을 경청하라. 그리고 그 허풍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예: 극히 야만적인 한 사람이 화려한 막사에 들어갔다. 극히 질서 있는 군대가 전체적으로 질서 있는 동작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의 동작으로 하나의 대대와 하나의 연대와 하나의 사단이 일어서고 앉고 행진하며, ‘발사’라는 명령으로 모두가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우둔하고 야만적인 이성인, 국가의 규칙과 왕이 내린 법규에 따라 한 사람의 사령관이 내린 명령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그 군사들이 서로 줄로 묶여있다고 상상했다. 또한 그 상상 속의 줄이 얼마나 놀라운 줄인가를 생각하고는 경악했다.

그리고 나서 성소피아 만큼 거대한 한 모스크로 어느 금요일에 가게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무슬림들이 한 사람의 소리에 맞춰 일어서고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며 앉아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하늘에서 계시된 영적인 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샤리아(이슬람법)와 그 샤리아의 주인의 명령으로부터 내려진 비물질적인 규칙들을 알지 못했다.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물질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놀라운 줄들이 그들을 엮매어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하며, 가장 야만적인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조차도 웃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바로 이와 같은 예처럼, 영원한 과거와 미래의 왕의 수많은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 화려한 막사와 같은 현세와 숭배를 받는 영원하신 분의 그토록 질서가 잡힌 모스크와 같은 이 우주에 야만 그 자체이며 부정적인 자연주의 사상을 가진 한 불신자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는 영원한 과거의 왕의 지혜로부터 내려온 우주의 법칙에 따른 영적 법규들을 한낱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주의 왕국의 고귀한 법규들과 영적이며 오직 지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숭배를 받는 영원하신 분

의 그 (şeriat-ı fitriye-i kubrası ⁴)의 지혜와 명령들을 한낱 외면적인 존재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성스러운 권능 대신에 지식과 말씀으로부터 나온 오직 지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런 법칙들로 대치했다. 그것들을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내어 나중에는 그것들에 “자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신성한 권능의 징후뿐인 그 힘을 하나의 강하고 독립된 어떤 다른 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의 예에서 본 야만성보다 1,000배는 더 저질스러운 야만임에 틀림이 없다.

요컨대, 자연주의자들이 근거도 없고 진실도 없는 자연이라고 칭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표면상의 실체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예술 작품에 불과하며, 예술가는 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자수이지 수놓는 자가 될 수 없으며, 법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의 집행자는 될 수 없으며, 창조의 규칙이 될 수 있지만 그 규칙을 만드는 자는 될 수 없으며, 고귀함의 장막일 뿐 창조주는 될 수 없으며,

⁴ 창조의 위대한 규칙

영향을 받는 피조물일 뿐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조주는 될 수 없으며, 하나의 법이지 권력도 아니고 권력자도 될 수 없으며, 틀일 뿐 근원은 될 수 없다.

결론: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있다. 이 글의 서두에 언급 하였듯이 만물의 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분류의 방법으로는 4가지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 4가지 중 3가지는 각자 3가지의 분명한 불가능을 통해 허황된 것임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 4번째 방법인 유일한 방법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다. 이 4번째 방법의 경우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أَفِي اللَّهِ شَكٌّ فَاطِرِ السَّمَوَاتِ وَالْأَرْضِ 5

라는 꾸란 구절처럼 의심하고 주저할 바 없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신성과 모든 것이 그분의 권능의 손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과 하늘과 땅이 그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⁵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느냐?

오, 원인과 자연을 숭배하는 불쌍한 자여! 모든 것의 자연은 모두가 그렇듯이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적이며 항상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들조차도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와 도구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그 자연을 창조하고 그 원인을 만드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 계심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은 그분의 창조와 양육에 함께 할 만한 그 어떤 힘 없는 수단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틀림없이 그분은 손수 그 결과를 그 원인과 함께 창조 하셔서 그분의 이름들을 현시하시고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일정한 배열과 질서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겉으로 보이는 결점, 부족함, 무자비함을 원인과 자연의 탓으로 돌리게끔 원인과 자연을 그분의 권능의 손에 대한 장막으로 만드셨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고귀함을 보존하셨다.

어떤 시계공이 시계의 톱니바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시계에 배치해서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더 쉬울 것인가? 아니면 멋진 기계를 그 톱니바퀴 안에 배치해서 그기계의 생명이 없는

손을 빌려 시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자, 당신의 그 부당한 생각으로 말해보고 판단을 내려보라.

또는 한 사람의 서기관이 잉크와 펜과 종이를 가져와 그것들을 가지고 직접 책을 썼다면 그것이 더 쉬울까? 아니면 그 종지와 잉크와 펜 안에 그 책보다 더 기술이 좋고 더 일을 많이 하며 그 책에만 맞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지각 없는 기계에게 “자, 네가 써보아라”하고 말하되 당신이 그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쉬울까? 아마도 당신이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지 않겠는가?

질문: 그렇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기계의 창조는 그 책보다 100배는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기계는 동일한 책의 수많은 사본들을 찍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더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답변: 영원한 수 놓으시는 분은 끝없는 능력으로 그분의 수많은 이름을 계속 새롭게 현시(顯示)하시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만물의 특징들과 독특한 모습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

면 책도 만물의 간청을 받으시는 분의 글이나 주님의 책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든 각기 다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눈이 있다면 인간의 얼굴을 보아라.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영원의 날까지 그 작은 얼굴 속에 기본적인 신체 기관들은 같지만 그 각각의 얼굴은 모든 다른 얼굴들과 비교해 보면 서로가 다른 표시들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각각의 얼굴은 서로 다른 하나의 책이다. 단지 예술적인 배치를 위해 서로 다른 글자 체계와 서로 다른 배열과 구성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재료들을 가져와 배치하고 각각의 존재에 필 요한 모든 것을 포함시키기 위해 완전히 다른 일터가 요구된다.

불가능하지만 자연을 인쇄소라고 치자. 그 인쇄소와 관련된 배열과 인쇄, 다시 말해 지정된 배열을 글자판에 집어넣는 일 이외에도, 그 배열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울 어떤 생물의 몸

체를 형성하는 물질들을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부터 가져와 정해진 비율과 특별한 어떤 순서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져와 인쇄소에 넘기기 위해서는 역시 그 인쇄소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권능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인쇄의 업무를 그렇게 추측하고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 없는 미신(迷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계와 책의 예처럼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자 만물의 지배자이신 분께서 원인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결과들도 창조 하셨으며 그분의 지혜로 결과들을 원인들과 연결시키셨다. 삼라만상의 움직임의 질서와 관련해 하나님의 실행 규칙일 뿐인 신성하고 위대한 창조의 헌법의 징후 그리고 만물의 그 징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한 만물의 특성을 그분의 의지로 결정하셨다. 또한 그 분께서는 자연의 실제적 존재의 대상이 되는 관점을 그 분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으며 그 자연 위에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을 서로 섞어 놓으셨다. 극히 합리적이며 수많은 증거들의 결과인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생명도 지각도 없고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당신들이 원인이나 자연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그 각각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장비와 도구들을 주어, 총명하고 지혜로운 일들을 그들 스스로가 하도록 맡기는 것이 더 쉽겠는가? 즉 기피 할 정도로 가능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당신의 그 공평하지 않는 이성의 공평성에 맡기겠다.

불신자이자 자연 숭배자가 말하길 “당신이 나를 공평성에 초대했으니 하는 말인데 지금까지 내가 실수로 간 길은 100배 불가능하며 극히 해로우며 한 없이 추악한 길이었다고 고백하겠소.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한 톨만큼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창조를 원인들과 자연의 덕으로 돌리는 것이 허황된 것이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덕으로 돌리는 것이 필연적이며 필수적일 것이오. 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며 나는 그분을 믿소.

그런데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는 인정한다. 하지만 몇 가지 사소한 원인들이 중요치 않은

어떤 것들을 간섭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약간의 칭찬과 찬미를 받았다고 해서, 주의 왕국에 무슨 해를 끼치겠어? 또한 그분의 왕국에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되겠어?

답변: 몇몇 글에서 아주 분명하게 증명했듯이 지배의 특징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가장 낮은 지배자나 그 신하도 자신의 지배 영역에 아들이 끼어드는 것을 거절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지배에 간섭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몇몇 독실한 신앙의 왕들이 - 칼리프임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무고한 아들들을 처형시킨다는 사실은 이 “간섭 배제의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도시에 두 명의 시장(市長)이 있거나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지배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간섭 배제의 원칙”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아주 무서운 혼란과 함께 그 힘을 발휘해 왔다.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 통치권과 지배권이 이토록 간섭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고 공동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의 통치에 대한 독립성을 그

토록 악착같이 유지하려는 것을 보라. 그런 후 절대 통치권 단계중 양육의 단계, 절대군주권 단계중 신성의 단계, 절대독립성 단계중 유일성의 단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음의 단계 중 절대적인 권능단계를 갖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분에게 이와 같은 간섭의 부정과 참여의 방해와 동반자의 배제가 그분의 통치에 얼마만큼이나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면 해보라.

두 번째 의문: 몇몇 원인들이 몇몇 보잘것없는 것들의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숭배를 받으시는 분인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향해 작은 조각에서부터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경배를 드리는데 무슨 오점이 남겠는가?

답변: 이 삼라만상의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삼라만상을 한 그루의 나무처럼 창조하셨으며 가장 완벽한 열매로 지각이 있는 존재를, 그 지각이 있는 존재들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열매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 그 인간의 창조의 결과요, 그 인간의 본성의 목적이요, 그 인간의 생명의 결실은 찬미와 경배일진데, 그 절대적인 통치자이자 독립된 군주이신 분께

서 그리고 그분 자신을 알리고 사랑하게 하도록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뿐인 유일신 하나님께서, 온 삼라만상의 열매인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의 가장 숭고한 열매인 찬미와 경배를 다른 것들의 손에 쥐여주시겠는가? 그분의 지혜와는 정반대로, 창조의 결과이자 삼라만상의 결실을 헛되게 하시겠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

또한 그분의 지혜와 양육을 거절할 만큼 피조물들의 경배를 다른 것들에게 내주는 것을 동의하시고 허락하시겠는가? 또한 끝없이 그분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알리게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피조물들의 찬미와 감사를 그리고 사랑과 경배를 다른 원인들에게 주심으로서 그분 자신을 잊도록 하시고 삼라만상의 자신의 숭고한 목적들을 부정하도록 하시겠는가? 오, 자연 숭배를 포기한 친구여! 한번 말해 보라.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찬미 있으소서. 나의 두 가지 의문은 이제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성스러운 유일신에 대하여 그리고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분은 그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분 이외에 다른 것들은 경배할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당

신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어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태양과 밝은 대낮을 부정하는 것만큼 이나 오만방자한 행위이다.”

